

# 삼표가 GREEN 세상

SAMPYO MEMBERSHIP MAGAZINE  
2019 SPRING VOL. 62

## 삼표인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계절

초심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걸음이 미약해 보일 때마다 지금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가족과 동료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삼표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는 바로 삼표 가족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이 특별한 이유 아닐까요? 새로운 봄을 맞아 다시 한 번 힘차게 시작하는 삼표인을 응원합니다.

TALK TALK TALK  
문종구 (주)삼표시멘트 사장 취임 인터뷰

HOT ISSUE  
(주)삼표산업·(주)삼표시멘트 VIP 고객 초청 행사

스포트라이트  
'영예스피치'로 새롭게 태어난다



SPECIAL THEME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는 삼표인의 봄

TALK TALK TALK

문종구 (주)삼표시멘트 사장 취임 인터뷰

THEME PRISM ①

변화를 위한 작은 한 걸음

THEME PRISM ②

작은 시도, 큰 변화를 담은 영화 세 편

HOT ISSUE

(주)삼표산업·(주)삼표시멘트 VIP 고객 초청 행사

스포츠라이트

'(주)에스피네이처'로 새롭게 태어나다

현장 속으로

국내 PC 업계 1위 삼표피앤씨(주) 청주PC공장

삼표 인사이드 ①

삼표그룹 핵심 가치 리뉴얼

삼표 인사이드 ②

직원 역량 체계 구축

FOCUS

(주)삼표산업 여주공장 영업과

CASE STUDY ①

레고의 성공 혁신 스토리

CASE STUDY ②

취향을 설계해 드립니다, 쓰타야 서점

포토 이벤트

삼표인의 '워라벨 타임'

삼표인의 시선

KS 인증, 과연 규제 완화만이 최선인가?

TOPIC & NEWS

삼표인 소식

QUIZ & NOTICE

03

04

06

08

10

14

16

22

24

26

32

34

36

38

42

46

47



HOT ISSUE

(주)삼표산업과 (주)삼표시멘트가 VIP 고객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현장, 삼표는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스포츠라이트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사업 재편에 힘쓰는 우리 그룹. 계열사 합병을 통해 '주)에스피네이처'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장 속으로

국내 최초 PC 더블 월(Double Wall) 방식을 도입해 공기 단축을 실현한 삼표피앤씨(주). 친환경·자동화 생산 설비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삼표피앤씨(주)를 만나 봅니다.



FOCUS

2019년 1분기 사업 계획 대비 출하량 1위, 순이익 1위를 달성한 (주)삼표산업 여주공장 영업과. 늘 성실하게 현장을 누비는 이들의 경쟁력을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 찾기 글자 한 개당 1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각 오프라인의 최초 접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니 오프라인을 발견하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완성도 높은 <삼표가 GREEN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문의 및 접수 : 홍보팀 김미미 사원 kmm@sampyo.co.kr



#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는 삼표인의 봄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하지 않으면 도태(淘汰)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도전과 낯선 환경이 두려워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아주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성취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목표까지 도달할지도 모르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 환경과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앞에서 삼표그룹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품고 이 봄을 맞이합니다. 삼표인의 힘찬 봄맞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변화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 문종구 (주)삼표시멘트 사장 “터놓고 소통하며 개선점 찾아야... 본부 간 유기적 관계도 중요”



문종구 (주)삼표시멘트 사장이 그룹 사보를 통해 임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인터뷰 내내 소탈하고 진솔했다. 허심탄회하게 소감을 전하고 한참 후배인 글쓰기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어린 조언을 해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잠깐의 인터뷰로 그가 강조하는 ‘소통’과 ‘투명성’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문 사장의 취임 소감과 경영 철학 등을 전한다.

글 홍보팀 이선화 대리 사진 홍보팀 김미미 사원

### ☎ 삼표시멘트를 이끌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삼표시멘트의 일원이 돼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 무겁습니다. 국내 건축 자재 산업계의 리더이신 정도원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잘 계승해 삼표시멘트를 이끌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영 악재였던 물류 문제와 시설 투자를 잘 마무리하여 삼표시멘트 발전의 기반을 다져 주신 정대현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 여러분, 동참해 주신 노동조합·협력업체, 지역사회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라는 그룹 슬로건대로 튼튼하고 기초가 잘 다져진 회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문종구 사장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영 철학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는 투명한 소통으로 맺는다고 생각해서요.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각자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들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과 터놓고 소통하면서 얻은 데이터 속에서 판단 근거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책도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춰 두고 덮는 데 급급하기보다, 터놓고 소통하며 개선점을 찾아 간다면 더 나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와 근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최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 현장 경영도 강조하셨습니까.

삼표시멘트를 구성하는 업무를 행하는 모든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광산본부는 광산에, 생산본부는 공장에, 물류는 물류 현장에, 영업은 고객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본부는 각 본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팅해 주는 게 현장 경영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현장의 리더인 거죠. 각각의 현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삼표시멘트도 살아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께서 각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도 주인 의식을 갖고 당당한 업무 태도를 보여 주십시오.

### ☎ 직장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멘트는 일관 산업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때 성과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광산개발과 생산, 물류, 영업, 관리본부가 잘 맞물릴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회사를 보고자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했음을 깨달으실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업무에 관심을 가져 보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직위에 오르면 지금 맡으신 일과 전혀 다른 업무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멘트 업계에 대해 폭넓게 공부해 두면 갑작스럽게 주어진 업무에도 금방 적응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 ☎ 올해 삼표시멘트 경영 목표는 무엇인가요?

‘큰 폭의 흑자 전환’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와 수요 하락, 선박 문제, 연료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올해는 선박 문제가 해결된 데다 각 본부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면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 어떤 CEO로 남고 싶습니까?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성장 발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삼표시멘트가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임직원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장과 발전은 특출한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맡은 바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배려심을 가지고 동료, 부하, 상사와 어울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책은 사람을 주눅 들게 하고 성과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려면 칭찬 한 번만으로 부족하다고 하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세요. 우리 모두 치열하게 일하고 따뜻하게 보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 왜 시작하지 못하나요? 변화를 위한 작은 한 걸음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정작 그는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하다  
94세에 세상을 떠났다. 촌철살인의 묘비명은 어쩌면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우리에게도 변화를 이끌어 낼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글 편집실 참고 도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 홍주현 저,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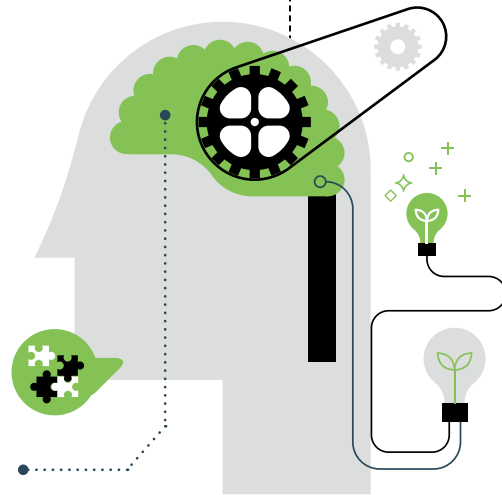
### STEP BY STEP

#### 게으른 뇌가 짜 놓은 자기 합리화?

뇌는 편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뇌의 게으름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성질'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과거 자주 느꼈던 감정 부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뇌가 이렇게 이끌어 낸 감정을 상황과 무관하게 어떻게든 합리화한다는 것. 하기 싫은 마음도 마찬가지로. 처음 도망치면서 품었던 마음을 뇌는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다시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뇌가 원하는 대로 주저앉는다면? 평생 새로운 시도, 도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 Step 1 무거운 첫발? 마음만은 가볍게

첫발이 무거워 도저히 떼지 못한다면 먼저 '시선 옮기기', 다시 말해 '다른 곳에 집중하기'를 기억하자. 자동차 액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려 놓으면 더 누르지 않아도 주행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하기 싫은 대상에 주의를 계속 두고 있으면 처음 느낀 긴장감, 부담감은 계속 커지게 마련이다. 그 감정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 도망가게 되는 것이다. 속도를 줄이려면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 것이다. 싫은 대상에서 주의를 거두는 것이 바로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것이다. 더 이상 싫은 걸 보지 않으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사그라든다. 그렇게 변화는 시작된다.



#### Step 2 쫓! 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은 걸음부터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뇌가 방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 30분 운동이 아니라 하루 1분 운동으로, 하루 1시간 공부보다 하루 5분 공부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뇌가 익숙해지면 다시 아주 작게 수위를 높여 가자. 이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 Step 3 인지부조화와 작동흥분이론의 역할!

아이러니하게도 뇌의 게으르고 익숙한 것만 찾는 특성을 이용하면 우리에게 '시작'이란 단어는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온다. 뇌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이 다를 때 부조화 상태를 불편하게 여기는데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이 부조화를 교정하기 위해 뇌는 태도에 맞게 생각을 바꾼다. 이를 역이용해 보자. 책을 읽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책을 펴고 읽는 것이다. 그러면 머릿속 생각과 다른 자신의 모습이 뇌에서 서로 충돌한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뇌는 행동대로 생각을 바꾼다. 한 페이지의 고비만 넘긴다면 마침내 독서를 흥미롭게 받아들이게 된다. 첫 장을 넘겼으니 이제 속력을 내 보자. '작동흥분이론'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한다. 뭔가를 일단 시작하면 뇌의 해당 부위가 활성화돼 자연스럽게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 작은 시도가 중요한 이유

미국 소설가 앤 라모트는 “글을 쓰고 싶다면 무조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라”라고 조언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옮기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정말 쓰고 싶은 것을 쓰게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글을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을 '작가의 장벽'이라고 한다. 앤 라모트는 머릿속 장벽을 깨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도'가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삶에도 장벽은 곳곳에 존재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시작할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때. 하지만 이제 그 장벽의 이유와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챘으니 약간의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일단 자판에 손을 올려 생각나는 글자를 쓰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문장이 완성될지도 모를 일이다.

#### 매일매일 실천 KNOW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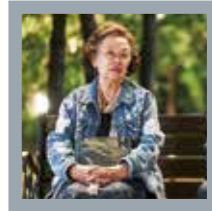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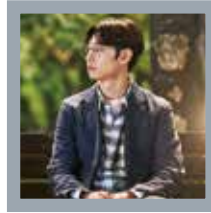
① 천 리 길도 상상부터 - 이미지 트레이닝 발표를 앞두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설명하는 모습, 혹은 신나게 운동하는 모습, 아침에 정한 시간에 가뿐하게 일어나는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 본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긴장하는 모습, 당황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도 상상에 포함한다. 스포츠 선수, 발레 무용수, 피아니스트 등도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으로 실력을 향상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시작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 ② I'm Watching You - 관찰하기

1924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호손 워크스'라는 공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산성 실험이 이뤄졌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들은 연구자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 근무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이처럼 스스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관찰자의 시선을 스스로 의식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 작은 시도, 큰 변화를 담은 영화 세 편 위대한 변화도 첫걸음부터

꽤 먼 길을 걸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문득 뒤돌아보면 처음의 작은 걸음이 새롭게 여겨지게 마련이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시작이 있어 지금 이곳에 당도할 수 있었다는 것. 위대한 변화는 바로 그런 작은 걸음에서 비롯된다. 글 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



### 아이 캔 스피크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해지기 위해

<아이 캔 스피크>라는 영화 제목에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뜻과 다른 하나는 지금껏 속으로만 꿈꿔 왔으며 숨겨 왔던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인공 옥분이 말할 수 없었던 건 일제 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는 그 사실이다. 피해자이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옥분. 그녀는 자신과 같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위해 세상 앞에 나서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한편 미국에 사는 남동생이 보고 싶어 영어를 배우려 하는 옥분을 도와주게 된 구청 민원실 공무원 민재는 조금씩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는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 막상 옥분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게 알려지자 그를 피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똑같이 느끼며 그가 미국 하원에서 발표할 영어 연설을 도와준다. “아이 캔 스피크”로 시작하는 옥분의 연설은 세상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스스로 자신을 꺼안고 당당해지는 첫걸음이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는 연설을 통해 미국 하원 역사상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인물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옥분이 애써 숨기려 했던 몸에 난 상처들을 당당히 드러내는 그 용기는, 세상은 물론 자신까지도 변화시켰다.



### 비긴 어게인 절망을 이겨 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음악 프로듀서 댄은 아티스트이지만 상업적인 음반 시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그레타는 실연의 상처가 있는 싱어 송 라이터. 그의 남자 친구 데이브는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한 후 스타가 되면서 마음이 변하고 결국 그레타를 배신한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두 사람을 음악이 일으켜 세운다. 댄은 뉴욕의 거리를 스튜디오 삼아 그레타의 음악을 음반으로 제작하고, 그 성공은 두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준다.

<비긴 어게인>은 “음악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성공에 이르는 길은 좁고 멀어 보여도 그 하나하나의 과정과 실행이 더해진다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길거리를 스튜디오 삼아 음반을 제작한다는 건 모험이다. 하지만 댄은 ‘순수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과감히 시도하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연스럽게 행인들이 참여하는 음악 속에서 본래 음악이란 그렇게 사람과 더불어 있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 댄의 모험심이 변화를 불러일으킨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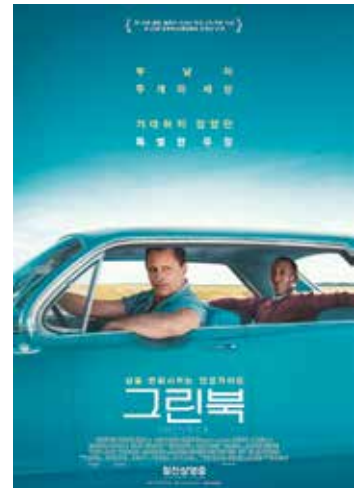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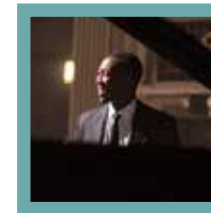
늘 시작은 소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시작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무모한 모험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건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한다. 결국 작은 시도라도 실행을 통해서만 이 시작될 수 있고, 그 작은 시도는 의외로 큰 변화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 그린북 변화를 위해 변화 없는 곳으로 떠난 여행

“왜 위험한 남부로 굳이 공연을 떠났나?” <그린북> 마지막 장면에서 백인 운전수인 토니가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인 돈 샐리에게 묻는 이 질문은 이 영화가 단순한 ‘브로맨스’를 담은 버디 무비가 아니라는 걸 말해 준다. 천재 흑인 피아니스트와 그의 차를 운전하는 백인 운전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1962년 미국, 그것도 인종차별이 더 극심했던 남부라면 말이 다르다. 결국 돈 샐리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변화가 없는 곳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그린북’은 ‘흑인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다. 당시 차별받는 흑인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정해 준 지도. 그것은 마치 인종차별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남부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다. 그 안내서 하나만 들고 세상 밖으로 첫발을 내딛는 두 사람. 이는 곧 그린북 밖으로의 여행이나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도 차별 의식을 갖고 있던 토니는 돈 샐리가 여행을 하며 겪는 일들을 통해 인종차별의 현실을 실감한다. 실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호텔 식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차별을 함께 겪으며 토니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린북 바깥으로의 여행은 그래서 그린북이 가진 고착화된 차별의 문제를 드러내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이루게 된다. 1964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 (주)삼표산업·(주)삼표시멘트 VIP 고객 초청 행사 고객 가치를 실현하라

기업의 성장은 고객 만족에서 시작된다.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는 우리 그룹은 매년 VIP 고객사를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직접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김미미 사원

경청하고 실행해 고객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주)삼표산업에서 개최한 레미콘·특수 콘크리트 분야 VIP 고객 초청 행사 현장을 소개한다.



삼표산업은 지난 2월 20일 레미콘·특수 콘크리트 분야 VIP 고객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홍성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종합건설·전문건설 분야 86개 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성원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VIP 거래선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무료 기술 지원과 자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객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직통 전화(삼표 콜센터)를 개통해 VIP 고객의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 그룹은 건설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사의 니즈에 부응해 자기충전·조강·내한 콘크리트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도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기 단축,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한 특수 제품을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 삼표산업 홍성원 대표이사는 “VIP 고객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행사를 매해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특수 콘크리트, 드라이 몰탈 등 업계를 선도하는 당사 제품 관련 기술 지원과 자문도 적극 시행하겠다. 나아가 고객과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우수 고객사 10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만찬과 함께 1시간가량 사상심리연구소 전금주 대표로부터 ‘사상체질 건강관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탄탄한 기술력과 품질로 신뢰를 쌓다

(주)삼표시멘트는 고객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영동권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VIP 초청 행사를 열었다. 고객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한 현장을 소개한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2월 26일 삼척공장에서 영동권 레미콘사를 대상으로 VIP 고객 초청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조 공정과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참석한 고객들은 시멘트 제조 설비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공정 설명을 들었다. 또 시멘트 화학 분석실과 물리 시험실을 둘러보며 다양한 시험 장비와 시스템화된 자동 측정 기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았다.

견학 후에는 강당에 모여 고객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멘트 품질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고객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고객들은 직접 시멘트의 제조 과정과 시험실의 자동화된 측정 기기 등을 견학하며 삼표의 기술력과 품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객과의 상호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길 희망한다.



## 삼표기초소재(주)·(주)네비엔·(주)경한 합병 ‘(주)에스피네이처’로 새롭게 태어나다



우리 그룹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용 절감과 시너지를 높여 성장 동력을 탄탄히 하기 위해 조직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계열사인 삼표기초소재(주)와 (주)네비엔, (주)경한의 합병 소식과 새로운 사명을 전한다. 글 편집실

### 미래 환경 자원 사업 키를 초석을 세우다

우리 그룹이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을 한데 묶어 몸집을 줄이는 등 체질 개선에 발 벗고 나선 것. 우리 그룹은 지난 1월 이사회 의결과 2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3월, 계열사인 삼표기초소재와 네비엔, 경한의 합병 작업을 완료했다. 단, 업무의 연속성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각자 대표이사 체제는 유지한다.

삼표기초소재는 콘크리트·시멘트의 핵심 재료인 골재·슬래그·플라이애시 등을 생산하며, 네비엔과 경한은 철근의 주재료인 철스크랩(찌철) 가공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모두 건설기초소재를 생산하는 계열사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시장 경쟁력과 R&D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복 투자 방지, 설비 공동 이용 등을 통한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표기초소재가 네비엔과 경한을 흡수 합병하며 새롭게 탄생한 기업명은 ‘에스피네이처’다. 당초 합병 법인의 이름은 ‘에스피네비엔’으로 잡았지만 친환경적인 ‘환경 자원 사업’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에스피네이처로 변경했다. 이는 친(親)환경에서 필(必)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환경 자원 사업을 우리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그룹은 환경 자원 사업을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 2020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다

최근 환경과 관련한 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어 산업 폐기물 매립 방식보다는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더 밝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2017년 기준으로 6,263억 원 수준이었던 세 회사의 합산 매출액이 오는 2020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합병 외에도 건설 경기 침체 대비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효율화’ 작업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룹 내 중복되는 사업 부문과 관리·영업 기능을 통합, 운영해 경영 효율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오규 삼표그룹 경영지원총괄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 수년간 어려운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 또한 중복 사업 통합, 인력 재배치, 부서별 역할·책임(R&R) 재정립 등 조직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PC 업계 1위 삼표피앤씨(주) 청주PC공장 PC 더블 월 방식 최초 도입으로 경쟁력 업그레이드

국내 최초 PC 더블 월(Double Wall)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기 단축으로 건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삼표피앤씨(주). 최근 친환경·저동화 생산 설비를 구축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한 삼표피앤씨(주)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홍보팀 김미미 사원 드론 윤세호



PC 더블 월 공정 시설 전경

### 최적의 PC 구조물을 구축하는 삼표피앤씨의 저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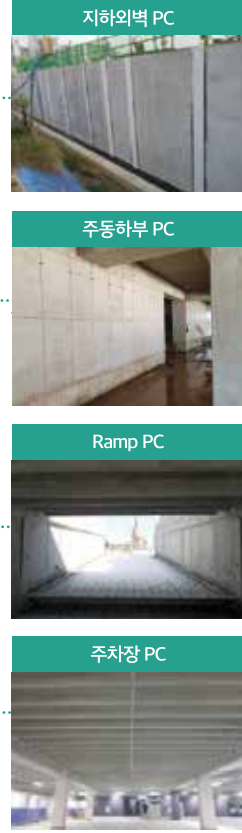
삼표피앤씨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공법이 건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PC 공법이란 완전 정비된 공장에서 제조된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제품을 공장 생산화한 공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방식과 달리 PC는 공장에서 형틀에 흘려 부어 이를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고른 품질을 자랑한다.

삼표피앤씨는 회사가 보유한 각종 PC 부재 신공법 중 친환경성, 경제성 및 시공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선별, 조합해 최적의 PC 구조물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제작으로 고품질을 유지하고 현장 작업 최소화 시공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유지 보수비를 절감해 경제성을 향상하고 현장 공정 최소화로 급속 시공이 가능해진 동시에 건설 폐기물 감소로 친환경 시공을 실현하는 등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사)한국건축구조기술학회의 기술 인증도 획득했다.

### PC 더블 월 방식 최초 도입으로 공기 단축 실현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표피앤씨는 국내 최초로 BIM(3D 빌딩 정보 모델링) 설계 기법과 연동되는 PC 더블 월(Double Wall) 방식을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 PC 더블 월 기술은 두 개의 PC 패널 사이에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해 시공하는 PC 공법과 RC 공법이 융합된 최신 건설 기술로, 유럽에서는 1980년 이후 다양한 주거 건물(고층 건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바닥판, 벽체판 일체화로 누수, 소음, 결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계화 시공으로 현장 인력을 줄이고 공정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가설재 사용 감소로 안전사고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특히 공장 제작한 부재를 기계화 시공함으로써 공기를 대폭 단축한다. 통상 RC 공사를 도입할 경우 총당 8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PC 공사는 총당 5일이면 가능하다. 이 밖에 거푸집을 해체할 필요가 없어 후속 공정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설계, 생산, 시공, 관리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표피앤씨

### 원스톱 종합 설계 서비스로 최고의 빌딩 솔루션 제공

삼표피앤씨는 풍부한 시공 경험과 노하우로 설계, 생산, 시공, 관리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목표로 회사의 모든 사업군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설계와 생산, 시공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생산과 시공을 감안한 최적의 종합 설계 서비스(PMS)를 제공한다. 또한 전 직원들은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 아래 각 사업군이 협업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2017년 기준 연 매출 국내 PC 업계 1위로 발돋움한 삼표피앤씨는 연간 총 PC 생산량이 22만 5,000m<sup>3</sup>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750m<sup>3</sup>에 해당한다.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삼표피앤씨는 근로 시간 단축 등 최근의 근로 환경 변화와 공기 단축 및 친환경 공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조립, 공장, 공법의 특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초고강도 대규격 공법 등을 적용한 기초(말뚝) 시공, 공사 효율을 높이는 설계 엔지니어링, 다년간의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하층 골조 PC 적용, 더블 월 자동 라인 구축을 통한 지상층 PC 구현 확대 로 기초에서 옥탑까지 최고의 빌딩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표피앤씨는 국내 최초로 BIM(3D 빌딩 정보 모델링) 설계 기법과 연동되는 PC 더블 월(Double Wall) 방식을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 이 기술은 바닥판, 벽체판 일체화로 누수, 소음, 결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국내 최초 친환경·자동화 생산 설비 구축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거점형 PC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표피앤씨. 현재 청주(연간 PC 생산량 9만m<sup>3</sup>), 여주(연간 PC 생산량 6만m<sup>3</sup>), 포항(연간 PC 생산량 4만 5,000m<sup>3</sup>), 제천(연간 PC 생산량 3만m<sup>3</sup>)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친환경·자동화 생산 설비를 새로 갖췄다. 더블 월 자동화 생산 설비, PC 회전식 생산 설비, 그린양생 시스템 등을 도입해 삼표피앤씨의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 최초 3종 조강 시멘트 도입도 삼표피앤씨의 강점 중 하나. 3종 조강 시멘트는 높은 강도로 거푸집 탈형 시기를 앞당겨 공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통 시멘트에 비해 수화열이 낮아 대형 구조물 공사에 탁월하다. 여기에 수밀성 증대 및 친환경적인 산업 부산물 이용, 알칼리 골재 억제 효과 상승으로 응결 시간과 균열 제어 효과도 볼 수 있다.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전경



지하층 더블 월 시공 노하우를 지상층 벽체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ALL PC화(化) APT를 완성한 삼표피앤씨의 국내 유일 최신식 공법

###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

국내 최고 수준의 콘크리트 기술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기술연구소는 콘크리트, 화학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이 포진해 있다. 자원순환형 고강도 PHC 콘크리트와 경량 기포 무기계 단열재 등 다수의 연구 실적을 거뒀다.

한편 삼표피앤씨는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회사인 람볼(RAMBOLL)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람볼은 1만 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로 2016년 기준 연 매출이 14억 유로(약 1.7조 원)에 달한다.

선진화된 시스템과 기술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삼표피앤씨. '국내 PC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임직원의 노력으로 삼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최초 친환경·자동화 생산 설비를 새롭게 구축한 삼표피앤씨

### 더블 월 생산 프로세스



### ◎ Mini Interview

####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로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삼표피앤씨(주) 청주PC공장 유종영 공장장

삼표피앤씨는 지난 2011년에 PC(Precast Concret) 업계의 후발 주자로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선두 주자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외형 확장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회전식 슬래브(JRS) 라인을 구축하는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제조업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 자동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 진일보한 지상화 올(All) PC APT를 구현하기 위해 BIM(3D 빌딩 정보 모델링) 설계 기법과 연동되는 더블 월(Double Wall, 벽체) 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효율 양산 체계를 구축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 솔루션의 투자와 개발은 현장 시공분을 줄이고 제조 비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이 미래의 PC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향후,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계 → 생산 → 시공 등의 분업화된 업무 체계를 단순화하는 최적 시스템을 구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면 명실상부한 1등 기업으로서 지속 성장할 것입니다.



### 삼표그룹 핵심 가치 리뉴얼

##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는 삼표인

기업의 핵심 가치는 명확한 행동 규범을 제시해 의사 결정 방향과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잡아 준다.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될 다양한 선택의 순간, 핵심 가치가 삼표인의 이정표가 되어 주는 것이다.  
그룹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최근 핵심 가치 리뉴얼을 단행한 우리 그룹이 지향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글 홍보팀 이선화 대리 자료 제공 HRD팀

####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윤리성'

핵심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룹의 지향점(비전)을 알아야 한다. 구성원 개개인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비전의 역할. 삼표그룹의 비전은 '친환경 Building Materials 1등 기업, 삼표'이다. 건설기초소재 산업을 1등으로 선도하고,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기업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핵심 가치를 충분히 내재화하고 현업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우리 그룹의 핵심 가치는 '도전 정신', '혁신', '전문성', '시너지' 4개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리뉴얼을 통해 '윤리성'이 추가되었다. 이 다섯 가지 핵심 가치 간의 체계도 새롭게 조직화했다. 우리 그룹의 핵심 가치는 기반 가치(기질), 행동 가치(방법), 지향 가치(Output)로 체계가 구성된다. 기반 가치는 임직원이 기질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뜻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업에서 행동 가치를 실천했을 때, 지향 가치가 성취될 수 있다. 쉽게 풀이하면 삼표인은 윤리성과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혁신과 전문성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시너지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가치



혁신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기반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는 가치



전문성

탄탄한 기본 역량과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직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사업 영역의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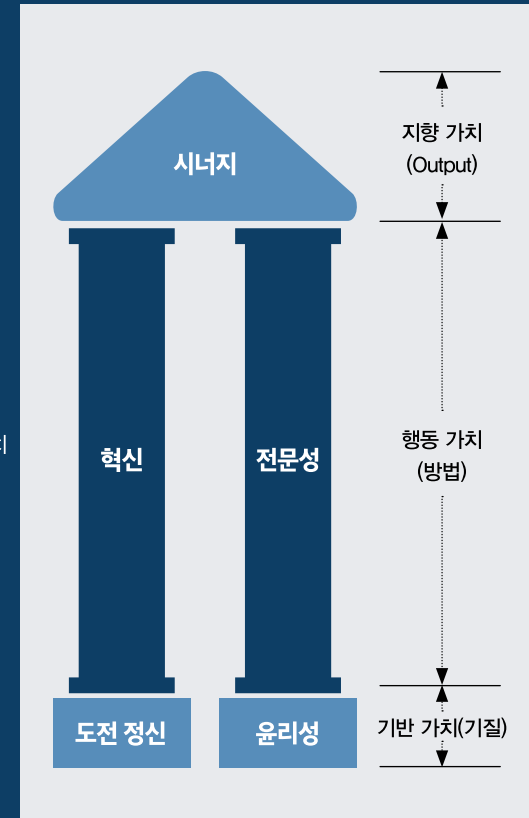
도전 정신

강한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목표한 성과를 끈기 있게 창출하는 가치



윤리성

**정직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며 모든 일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가치



HRD팀은 "삼표인의 윤리 의식 함양을 추구하기 위해 윤리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과정에서 사익 추구 행위, 리스크 지체 보고 및 누락, 허위 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우리 그룹은 윤리성을 임직원의 핵심 가치로 삼아, 윤리 경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핵심 가치 리뉴얼을 진행한 HRD팀 담당자는 "그룹 차원에서 직원 윤리 교육, 리스크 관리·내부 신고 제도 운영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직하고 투명한 윤리성을 기반으로 삼표 가족 모두가 '친환경 Building Materials 1등 기업, 삼표'를 만들어 나갈 것 기대한다.

## 직원 역량 체계 구축 미래 리더로 성장하는 새로운 지표

우리 그룹은 구성원의 역량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발 필요 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미래 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글 HR기획팀



### 역량이란 개인의 내적 속성

‘조직 역량을 극대화해야 된다’, ‘한국형 역량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등 교육이나 TV, 신문기사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역량’이라는 단어를 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량’은 무엇이며, ‘역량 체계’란 무엇일까? 역량이란 우수한 성과 창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속성을 말한다. 관찰하기 쉬운 지식 및 기술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관찰은 어렵지만 개인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사고방식,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역량 체계 구축이란 조직의 특성과 인적 구성 등을 반영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등의 필요 역량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삼표인의 필요조건! 핵심 역량, 리더 역량, 업무 역량

우리 그룹은 최근 직원 역량 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직원 역량 체계 항목들이 회사가 당면한 사업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와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역량 항목별 세부적인 행동 지표에 대한 정의가 다소 부족해 승진·보상 등 인사 운영을 위한 판단 요소로만 활용되고 ‘인재 육성’ 관점에서의 활용성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우리 그룹은 조직의 미래 리더와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원 역량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며 핵심 역량과 업무 역량을 구분해 제시했다. 핵심 역량에는 우리 그룹의 위기 극복과 발전 과정을 통해 기질적인 특성으로 축적한 우리만의 DNA(열정, 집념 등)를 반영했고, 업무 역량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량 항목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팀장 역량 항목은 삼표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질적인 특성(핵심 역량)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 필요한 역량(리더 역량)으로 구성했다. 팀원 역량 항목은 팀원 수준에 맞도록 핵심 역량의 행동 지표를 조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을 업무 역량 항목으로 도출했다.

또 각 역량을 진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세부 행동 지표를 정의했

으며, 임원-팀장-팀원 역량 항목이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진단·파악하고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 직원 역량 체계, 이렇게 활용된다!

직원 역량 체계는 개인별 역량 진단을 통해 강점 및 개발 필요점을 도출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또 HR에서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인사이동-승진-보상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역량 진단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역량 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육성’에 있다. 이번 역량 체계가 인재 육성의 중요한 툴(Tool)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새롭게 구축된 역량 체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팀장·임원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 및 부족한 역량을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또 리더와 함께

부족한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리더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도 좋다.

### 역량 진단은 우리 조직의 건강검진

우리는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의 약한 부분을 확인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약을 처방받거나 운동을 한 후 다시 검진을 받아 개선 정도를 파악한다. 역량 진단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HR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역량 진단을 통해 개인별 육성 계획과 결과를 관리하는 한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역량에 대한 자기 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자기 진단을 실시해 본인의 부족한 역량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선 실천 방안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삼표인 모두가 새로운 역량 체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할 때 개인의 지속적인 성과와 조직의 성과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



## (주)삼표산업 여주공장 영업과 상생과 조화의 힘으로 앞서가는 우리

영업은 정글에서 벌어지는 모험과 비슷하다.  
'수요'라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인디애나 존스.  
단서만 있을 뿐이지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쓰디쓴 실패도 맛본다. 게다가 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9년 1분기 사업 계획 대비  
출하량 1위, 순이익 1위를 달성한 주인공들이 있다.  
바로 여주공장의 영업과 4인방과 여주공장  
라정석 공장장. 매일 발로 뚫 증거를 보여 주듯이  
인터뷰 중에도 그들의 전화는 실 새 없이 울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표를 위해, 삼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주)삼표산업 여주공장 영업과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최민석, 박남규(Penn Studio)



(왼쪽부터) 임윤섭 사원, 김대진 팀장, 서승애 대리, 라정석 공장장, 임승진 과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발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1분기 흑자의 구심점이 된  
임승진 과장의 SK하이닉스  
납품 건도 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노력 덕분입니다.”



**Q. 여주공장 영업과를 소개해 주세요.**

**김대진 팀장** 여주공장 영업과는 저를 포함해 네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들 아침부터 기존 거래처와 현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거래처 영업을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죠. 보통 4시쯤 다시 사무실에 모여서 일과를 공유합니다. 거래처 수주는 기본이고, 계약 후 물량 배정을 통한 납품 관리, 거래처의 채권, 미수금, 연체 관리와 지역 레미콘의 시황 및 특이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담당하는 구역이 작지 않다 보니 하루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임승진 과장** 현재 여주공장 영업과 담당 지역은 여주, 이천, 문막, 양평입니다. 영업은 전방위로 하지만 보통 레미콘 차량이 건설 현장에 9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과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50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죠.

**Q. 왜 50분 이내의 현장 위주인지 궁금합니다.**

**김대진 팀장** 여주의 위치상 강원권과 수도권의 권역과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조합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영업을 하다 보면 권역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서로가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편이죠.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에게 좋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영업에 한계를 두지는 않습니다.

**라정석 공장장** 여주의 경우 지역 크기에 비해 경쟁사가 많습니다. 여주에만 16개의 업체가 있고 가까운 원주에도 18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거리 현장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Q. 이처럼 쉽지 않은 환경에서 1분기 흑자를 이룬 비결은 무엇인가요?**

**김대진 팀장** 전국적으로 업계가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업종 자체가 개발에 따른 분위기를 타다 보니 건설 현장이 없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발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특수품 납품 건 역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설비 보안을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대처가 1분기 흑자의 구심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임승진 과장** 원래 저희의 기존 시설이었다면 원활한 납품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자와 미팅을 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재빨리 공장을 보수하고 개선했습니다.

**Q. 발주자 요구 기준을 맞춰도 수주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서승애 대리** 기준은 말 그대로 출발선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계약을 체결해도 납품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기도 해요. 이 점에서는 삼표라는 브랜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만큼 품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현장에서 품질로 저희가 타 회사에 밀리거나 트집 잡힌 적이 없습니다.

**라정석 공장장** 입사 19년 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어서도 됩니다.(웃음)

**임윤섭 사원** 품질은 삼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원자재를 구할 수 있어도 질이 좋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좋은 재료를 공수하죠. 품질에 자신이 있다 보니 영업할 때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주공장이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납품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Q. 성과에 따른 포상이 있었나요?**

**임승진 과장** 얼마 전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삼표그룹 직원 12명과 함께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맑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우수사원으로도 뽑히고 여행도 다녀오니 기분이 좋았죠. 자연스럽게 애사심이 생기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여주공장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김대진 팀장** 라정석 공장장님이 여주와 원주 두 곳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원을 받거나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주공장에서 여섯 대가 지원을 왔습니다. 두 공장의 실적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삼표 가족이니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라정석 공장장** 사실 영업과 직원들은 힘들 겁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굳이 원주공장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사정을 알고 있으니 거래처를 한 번이라도 더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영업과 직원들이 고맙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Q. 다들 가족처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김대진 팀장** 인원이 적어서 똘똘 뭉치다 보니 가족 같은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임운섭 사원** 서승애 대리님의 영향도 큼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다 보니 무신경하고 적적할 수 있는데 대리님이 직원들의 생일과 경조사를 다 챙겨 주세요. 마치 안방마님 같은 포스로 밝은 미소와 함께 여주공장을 휘어잡으시니 분위기가 한층 밝아집니다.

**임승진 과장** 서승애 대리가 평소 알뜰살뜰 잘 챙기다 보니 저희도 화이트 데이나 밸런타인데이 같은 날에는 회의실 테이블을 먹을거리로 가득 채워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임운섭 사원** 막내인 제 입장에서는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셔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연차를 쓴다고 하면 팀장님이 굳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토요일 휴무도 편하게 잡죠. 하지만 다른 회사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연차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토요일 휴무도 잘 못 잡게 하는 문화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실 때 쉬고 일할 때 일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서 오히려 근로 의욕이 더 강해지고 있죠. 출근은 빠르지만 그만큼 퇴근도 빨라서 '워라벨' 생활을 하기에 좋죠. **라정석 공장장** 말 나온 김에, 이제 저희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웃음)

**Q.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대진 팀장** 영업과를 대표해 말하자면, 건설 경기가 침체기라 모두 고생하는데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해 주는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1분기 때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도 서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삼표를 위해 열심히 영업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레고의 성공 혁신 스토리 몰락하던 장난감 회사가 살아남은 법



어린이부터 구글의 창업자까지 한 해 전 세계 7,500만 명이 구매하고 연간 2억 박스 이상 팔리는 세기의 장난감 레고. 하지만 레고도 큰 위기를 겪은 시절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04년 파산 위기를 맞은 것이다. 뼈아픈 경험을 딛고 다시 완구 산업의 선두 주자로 일어난 레고의 성공 전략을 살펴본다.

글 김민주(리드앤리더 대표, <레고, 상상력을 팔다> 저자)

### 무분별한 변화 전략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다

1932년 덴마크에서 문을 연 레고는 플라스틱 브릭 장난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최강자 자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90년 중반부터 전자 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며 레고의 매출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줄곧 증가했던 매출이 1995년 들어 첫 감소했고 이익 역시 전년에 비해 2/3 수준으로 줄었다. 디지털 열풍에 밀린 전통 장난감 시장 축소와 저가 중국산 장난감의 공세,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레고는 급변하는 장난감 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컴퍼스 경영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의류, 시계, 출판, 미디어 사업은 물론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도 시작했지만 매출 증가는 제한적이었다. 경영진은 조급한 마음에 1998년 외부의 기업 회생 전문가를 영입해 전권을 행사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전략상 악수를 두고 말았다.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명목 아래 기존 브릭을 활용한 제품 라인 생산을 줄였던 것이다. 대신 브릭과 호환되지 않는 신제품만 잔뜩 개발해 제품 개발, 공급, 유통 비용이 급증하고 말았다. 그 결과 2004년 레고의 매출은 10년 전인 199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 장난감 업체에서 상상력의 아이콘으로

2004년 예르겐 비 크누스토르프는 CEO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회사가 불타는 플랫폼에 서 있다.” 그는 우선 회사 규모를 크게 축소하고 돈이 되지 않는 제품 라인은 과감하게 폐쇄했다. 총제조비용(이하 FMC) 개념을 도입해 13.5%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제품 라인이라면 살려 두었다. 듀플로, 시티 등 전통 레고 제품 라인은 복구했는데 FMC 기준을 제대로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브릭 부품의 개수도 크게 줄어 들었다.

현금을 확보하고 수익성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한 CEO 예르겐은 2005년 공유 비전을 선포했다. 2010년까지 3단계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생존하는 1단계는 마무리했으니 ‘건강한 핵심 사업을 정립하는 2단계’와 ‘유기적 성장을 지속하는 3단계’로 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 그렇다면 레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

### 변화 전략 ①

#### 키덜트라는 새로운 타겟

레고는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해 타겟 고객을 어린이 고객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성인으로 확대했다. 성인 레고 팬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이들이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자신의 조립 실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출시된 지능형 로봇인 마인드스톰NXT는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레고는 전 세계 마인드스톰 팬을 대상으로 ‘퍼스트 레고 리그’ 로봇 경진대회까지 열었다. 한편으로는 기존 남자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신상품도 개발, 출시해 큰 인기몰이를 했다.

### 변화 전략 ②

#### 제품 본질에 충실한 마케팅

레고는 단순히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아닌 아이들과 어른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창의성을 고취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는 ‘조립’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똑똑한 마케팅이 자리 잡고 있다. 레고는 브릭페스트(BrickFest)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시카고의 한 건축가에게 전 세계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레고 아키텍처 세트 상품으로 만들도록 했다. 실존하는 상징성 높은 장소나 건축물을 직접 조립해 보는 경험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며 나이를 불문한 레고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다. “삼류 기업은 위기에 의해 파괴되고, 이류 기업은 위기를 이겨 내며, 일류 기업은 위기 덕분에 발전한다.” 정말 맞다. 레고는 2000년 전후에 세차게 몰아닥친 위기로 호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변화에 제대로 대처한 혁신 사례를 남겼다. 무분별한 혁신이 아닌 기업의 핵심 역량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변화 전략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다.



## 취향을 설계해 드립니다 쓰타야 서점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산업이 확산되고 오프라인 서점과 종이책 시장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요즘, 일본 최대의 서점인 쓰타야는 승승장구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본 '쓰타야 서점'의 성공 비결을 소개한다.

글 광속철(CNE 혁신연구소 소장) 참고 도서 <지적자본론> 민음사



### 취향 저격이 곧 경쟁력

쓰타야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에 담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책을 분류하고 진열하는 방식이 경영, 문학, 인문 등 십진분류법에 따르는 기존의 서점과는 전혀 다르다. 쓰타야 서점은 여행, 요리, 인문과 문학, 디자인과 건축, 자동차, 아웃도어 등 고객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편했다. 예컨대 아웃도어 코너에 낚시에 관한 책과 함께 낚시 장비와 의류를 진열하고 관련 강좌 수강권을 함께 판매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컨시어지(접객 담당자) 개념을 도입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제품을 선택, 진열하고 고객 응대까지 담당한다.

현재의 쓰타야 서점은 최고 경영자 마스다 무네아키 회장의 독특한 전략에서 시작되었다. 마스다 회장은 SNS나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 활동을 하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은 고객이며,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을 간파한 것. 마스다 회장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 서점에 와서 자동차 관련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고객의 열망을 설계하고 확장시키는 전략을 과감히 시도했다. 이러한 그의 전략은 현재 일본 내에 1,5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서점으로 성장하며 성공을 거뒀다.

### 오프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

쓰타야 서점의 또 다른 성공 요소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이 당연한 일상이 되고 오프라인 서점이 줄줄이 폐점하는 가운데, 마스다 회장이 시내의 값비싼 땅에 거대한 서점을 개점하려고 하자 주위의 반대가 거셌다. 그럼에도 그가 이를 밀어붙인 것은 온라인에서는 결코 찾기 힘든 오프라인의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의 첫 번째 장점은 '즉시성'이다. 당일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클릭한 상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손에 넣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직접성'이다. 직접 보고 듣고 만져 봄으로써 상품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편안함'으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온라인에서 줄 수 없는 편안함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스다 회장은 '편안하게 오래 머무르게 하라'는 슬로건을 걸고 쓰타야 서점 공간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한 예로 도쿄 다이칸야마점에 있는 쓰타야 서점의 경우 편안한 의자에 앉아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매한 음반을 최고급 스피커와 오디오 시스템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실내를 꾸몄다. 부담 없이 책을 가져다 읽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나 상품을 골라 즉시 구입할 수 있는 곳, 고객의 일상에 휴식처를 제공하는 쓰타야 서점.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타야 서점을 찾는 이유다.

# It's 워라밸 타~임~ 달콤한 나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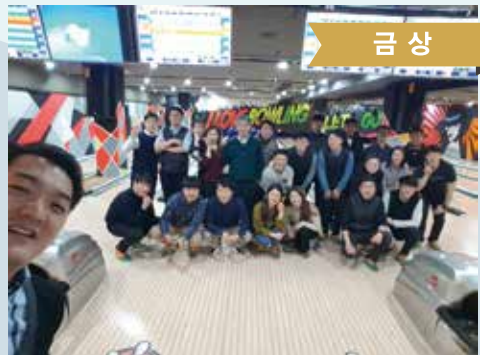
회사 집 회사...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지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충전을 해야 하듯, 우리에게도 틈틈이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과 여가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으며 활력을 충전하는, 삼표인들의 '워라밸 타임'을 공개합니다. 정리 편집실



**대상**

볼링 동호회 교류전을 위해 경북 포항/영천, 강원 삼척 볼링 동호회원들이 포항에 집결했습니다. 다 함께 스트레스 스트라이크!  
**㈜에스피네이처 환경기획팀 서동욱 차장**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함께 있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을 챙기며 틈틈이 수영을 합니다.  
**㈜삼표시멘트 HR팀 진윤선 사원**



**금상**



일상의 리프레시가 된 베트남 여행.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면, 떠나 보세요!  
**㈜삼표 제도개선팀 운동훈 대리**



취미로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세 교정에 정말 좋을뿐더러 '힐링'도 된답니다. 다리를 좌우, 앞뒤로 찢는 스트레칭 중에 한 컷!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은상**

매달 한 번씩 스크린 야구를 하는 야구 동호회 '블루스프릿'. 총무로서 동호회가 모두에게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표레일웨이㈜ PST팀 박원호 과장**



여행으로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찾는데, 올 겨울은 남동생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은 제주도의 동백 군락지에서 찍었습니다.  
**㈜삼표산업 자원개발2팀 김지수 사원**



뮤지컬을 좋아해서 내한 공연 소식에 바로 예매해서 본 <라이언킹> 웅장함과 스펙터클이 제가 본 뮤지컬 중 역대 최고였습니다.  
**㈜삼표 사회공헌팀 박소윤 대리**



**동상**

퇴근 후 대구 야경이 보이는 앞산 전망대 등반! 탁 트인 야경을 바라보며 상쾌함과 활력을 얻는답니다.  
**㈜에스피네이처 대구사업소 김준수 대리**



주말에는 가족들과 근교로 산책을 가거나 여행을 즐깁니다. 사진 속 그날도 한 주의 피로를 잊게 해 주는 가족 나들이 중이었지요.  
**㈜에스피네이처 중기기술팀 설은석 대리**



사우들과 함께 퇴근과 동시에 볼링장으로 출근(?)하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단함과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볼링 추천합니다!  
**㈜삼표산업 화성공장 품질과 김대한 사원**



## KS 인증 제도의 선진화 방안 KS 인증, 과연 규제 완화만이 최선인가?



요즘 들어 KS 인증 제도를 '규제'로 보는 시각이 만연하다. 그러나 KS 인증 제도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할 경우 당장은 기업에 편할지 몰라도 멀리 보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KS 인증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 봤다.

글 ㈜삼표산업 박민용 상무

### KS 인증 제도의 중요성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은 곧 그 기업의 '품격'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품질 경쟁'을 넘어서 '품격 경쟁'이라 할 만큼 제품의 품질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위상을 대변한다. 그간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 수준을 논할 때, 'KS 인증'을 빼놓을 수 없다. KS 인증이 없었다면 '표준화'도 없었을 것이고, '품질'과 '효율성' 역시 언급하기 쉽지 않았을 터이다. KS 인증은 우리 산업의 중심에 있었고, 기업은 품질의 규격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품질을 관리해 왔다.

요즘 기업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KS 인증으로 품질 경영을 도모한다. 원자재, 공정, 제품, 설계 등을 포괄한 총체적인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은 물론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KS 인증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KS 인증이 제품과 회사의 이미지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KS 인증을 거쳐 품질이 향상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2015년 개정된 KS C 5078 '자동차용 사고 영상 기록 장치'는 그 한 사례다. 이 제품은 인증 기준을 강화한 덕분에 영상 파일의 삭제 유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동작 기준의 온도를 60°C에서 70°C로 상향해 고온에서 오작동이 많았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KS 인증은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

KS 인증 제도 초기에는 거래의 투명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안전 등 산업사회의 근간에 중점을 두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충족하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프랑스의 AFNOR 등 선진국의 표준 기관처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더욱 확장해 표준을 이용한 제도 개선까지 추구하고 있다.

### 표준을 선도하려는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 필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비롯한 융복합 산업의 발달로 요즘의 시장 상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스마트폰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품질을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 기준점을 제시하는 국가 표준인 KS 인증 제도는 앞에서 언급했던 블랙박스의 사례처럼 기업의 수준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



산업과 표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KS 인증을 규제라고 여기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기업은 표준을 선도하는 상향식(Bottom-up)의 능동적인 태도로 KS 인증 제도에 참여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계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준비했던 기술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면 더욱 노력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터이다. 한마디로 인증 심사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기업은 더욱더 품질 향상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준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해 왔으며,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토대다. 또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는 사안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증 제도의 속성상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KS 인증에 대해 그 규제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인증의 기준과 심사가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산업과 표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KS 인증을 규제라고 여기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마땅하다. 정부 주도로 표준을 개발해 기업을 이끌어 왔던 과거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이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 개발로부터 얻은 결과를 표준으로 체계화하는 것처럼, 기업은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선도하는 상향식(Bottom-up)의 능동적인 태도로 KS 인증 제도에 참여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상향식 형태의 인증 제도는 인증과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수준 향상을 통한 능동적인 참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KS 인증 정기 심사 시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제품 심사를 폐지하고, 인증 기업 품질 관리 담당자의 품질 교육 이수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기업의 편의만을 생각해 KS 인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KS 인증 제도의 방향성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앞으로 시장에 출시될 제품들은 매우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눈높이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과거에는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 공정의 관리 체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KS 인증 제도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그 본질과 위상을 새로이 정립한 'KS 인증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KS 인증 제도의 선진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KS의 시방화'다. KS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 방법, 시험·검사·측정 방법 및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방법·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시장 변화의 핵심이 제조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건들이 요구되에도 단순화된 현재의 KS 제도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시장 구조의 요구 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정체되어 있던 표준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향후 우리가 국제 표준을 주도해 나아가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둘째, 'KS 인증 기업의 등급화'다. 일정한 기준만 통과하면 부여하는 KS 인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같은 품목의 KS 제품일지라도 품질 경영, 설비 조건, 연구 개발 등에 따라서 품질의 차별이 존재하며,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S 인증의 등급화가 실현된다면 기업의 품질 경쟁력도 더불어 상승할 터이다.

셋째, 'KS 인증 심사의 시스템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KS 심사 기준은 규제가 완화되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누락되어 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설 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KS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것이다. 따라서 KS 인증 심사는 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 이를 유형별로 시스템화해야 한다.

KS 인증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느긋하게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이 도래하면서 기업과 나라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인증과 표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표준 체계 구축과 적절한 인증 제도의 활용은 일부 기업이나 국가 조직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더욱더 요구된다 하겠다.



#### 박민용 상무

(주)삼표산업 품질기획 담당.  
ISO/TC 71 콘크리트 전문위원,  
ISO/TC 74 시멘트 전문위원을  
비롯해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부회장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TOPIC 1



## ㈜삼표시멘트, 2019 주주총회 개최

㈜삼표시멘트는 지난 3월 25일 강원도 삼척 본사에서 '2019년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감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실태, 영업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날 새로운 이사진도 선출했다. 문종구 대표이사 신규 선임은 비롯해 전군표 전 국세청 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도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가 운용된다. (주)삼표시멘트 주주총회 담당자는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 TOPIC 2



## ㈜삼표시멘트, 7,000톤급 운송선 확보로 운송 경쟁력 강화

㈜삼표시멘트는 지난 4월 4일 부산 감천항에서 시멘트 운송선인 '삼표3호' 명명식을 열었다. 문종구 (주)삼표시멘트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안전 기원제, 선박 명명장 수여, 선박 견학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삼표3호는 길이 100.10m, 너비 19.20m, 재화중량톤수(DWT) 7,374톤에 달하는 시멘트 전용선이다. 이번 삼표3호를 확보함에 따라 (주)삼표시멘트는 총 10척의 운송선을 보유하게 됐으며 해상 운송 능력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상 운송 의존도가 90%에 달해 적정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 이번 취항으로 물류 비용 감소, 운송 정상화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종구 사장은 명명식 기념사에서 "삼표3호 도입으로 삼표시멘트 물류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적정 선박 확보로 연안 수송 능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삼표시멘트는 오는 5월에 11번째 운송선 '삼표5호'를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겪었던 물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흑자 전환의 토대를 구축했다.

## 삼표그룹

### 삼표그룹, 서울러닝센터 운영 도입

삼표그룹 HRD팀은 올해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에 서울러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러닝센터에서는 직무 전문 과정(영업·회계·PM 등), 경력 그룹 입문 과정, 사입부 교육, 경주·서울 연계 교육 과정 등을 실시하고, 경주 삼표연수원에서는 신입 승진자 과정, 계층별 향상 과정, 공채·수시 사원 그룹 입문 과정이 진행된다. 현업 부서에서 교육 목적으로 서울러닝센터를 이용하려면 최소 한 달 전 HRD팀에 사용 문의를 해야 한다. HRD팀 담당자는 “교육 효과성과 몰입도 증대를 위해 경주 삼표연수원과 더불어 서울러닝센터도 운영하게 됐다”며 “서울러닝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외부 교육장 임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삼표산업

### 물탈사업본부, 2019년 목표 달성 결의대회 실시

지난 2월 16일 물탈사업본부는 2019년 목표 달성을 향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수락산 등반에 나섰다. 최장현 본부장을 비롯해 건설수주영업팀, 특약점영업팀, 벌크영업팀, 신사업팀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굳은 결의를 다진 시간이었다. 차가운 산바람과 눈길을 올라야 하는 험난한 등반길이었지만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 주는 팀워크를 발휘해 모든 구성원이 무사히 등반을 완료했다. 이날 정상에 오른 것처럼 더 높이 도약한다는 의지를 가슴 깊이 품은 물탈사업본부는 올 해 목표를 향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하며 하산했다.



## 삼표시멘트

### 행복 증진 터전, 복지관 준공

삼표시멘트가 지난 2월 18일 복지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복지관은 직원 시설의 운영 설비가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사용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되었다. 연면적 1,294㎡(392평)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보일러실이, 1층에는 380개의 라커를 구비한 목욕탕이, 2층에는 헬스장, 노조사무실, 회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복지관 준공식에는 정대현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공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관 신축에 따른 사업 개요 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대현 사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노후된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내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새로운 복지관 준공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라며 “향후 복지관이 회사의 명실상부한 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현재 복지관은 문을 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목욕탕은 사전 준비를 거쳐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기존 목욕탕은 리모델링을 거쳐 회사와 상생하는 협력사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삼표시멘트,

### 삼척 정월대보름제에서 홍보 부스 운영

삼척시의 대표 지역 축제인 정월대보름제(정월대보름 제례 행사)에서 삼표시멘트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회사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지난 2월 15~17일과 19일에 삼척 엑스포광장 및 오십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 정월대보름제 행사는 풍성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했다. 삼척 지역에 전승돼 오던 기줄다리를 중심으로 천신·농신·해신에게 풍년과 풍



어를 기원하는 삼원제, 민속놀이, 각종 부대 행사, 체험 행사, 홍보 부스 운영 및 공연 등으로 활기를 띠었다.

행사 기간 동안 삼표시멘트는 홍보 부스를 운영해 자원 재활용 및 사회공헌 사업 홍보 영상, 사진 이미지, 각종 자료들을 전시했으며 홍보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을 위해 이벤트와 기념품을 증정했다. 삼표시멘트가 생산하는 완제품 포장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팝콘을 포장해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로 삼았다.

# 입사를 축하합니다!

| 회사명     | 팀명         | 이름       | 직급      | 입사 일자      |            |
|---------|------------|----------|---------|------------|------------|
| ㈜삼표     | HRM팀       | 김학태      | 차장      | 2018-12-17 |            |
|         | 시스템팀       | 최성식      | 대리      | 2019-02-11 |            |
|         | PI/IT본부    | 정현용      | 전무      | 2019-02-11 |            |
| ㈜삼표산업   | 연구소        | 이재훈      | 5급      | 2018-12-21 |            |
|         | 혼화제공장 품질과  | 이재진      | 5급      | 2018-12-21 |            |
|         | 사업개발1팀     | 정홍재      | 차장      | 2018-12-21 |            |
|         | 몰탈신제품사업팀   | 고상진      | 과장      | 2019-01-02 |            |
|         | 재무기획팀      | 지승민      | 부장      | 2019-01-07 |            |
|         | 인천공장 관리과   | 한상민      | 주임      | 2019-01-07 |            |
|         | 계량사업소      | 김태경      | 사원      | 2019-01-23 |            |
|         | 몰탈신제품사업팀   | 이동규      | 차장      | 2019-01-28 |            |
|         | 화성공장 관리과   | 이승수      | 사원      | 2019-02-11 |            |
|         | 경인사업소      | 관정수      | 사원      | 2019-02-11 |            |
|         | 인천몰탈공장 품질팀 | 김진환      | 차장      | 2019-02-18 |            |
|         | 화성몰탈공장 생산팀 | 박성호      | 사원      | 2019-02-18 |            |
|         | 남부공장 관리과   | 조약돌      | 사원      | 2019-03-01 |            |
|         | 양주공장 관리과   | 조익현      | 사원      | 2019-03-01 |            |
|         | 광산생산팀      | 유성범      | 대리      | 2019-01-07 |            |
|         | 제품팀        | 김영식      | 생산6급    | 2019-01-14 |            |
|         | 공무팀        | 강민호      | 과장      | 2019-01-28 |            |
| ㈜삼표시멘트  | COO        | 문중구      | 사장      | 2019-02-01 |            |
|         | 생산부공장장     | 송중식      | 전무      | 2019-02-01 |            |
|         | 광산본부장      | 정성래      | 전무      | 2019-02-01 |            |
|         | 대외협력팀      | 정규식      | 부장      | 2019-02-01 |            |
|         | 제주지사       | 장이운      | 촉탁(6급B) | 2019-02-15 |            |
|         | 특수영업팀      | 김성수      | 차장      | 2019-02-15 |            |
|         | 광양슬래그공장    | 서현용      | 선임사원    | 2019-02-15 |            |
|         | 경영관리고문     | 맹정열      | 상근고문    | 2019-03-01 |            |
|         | 삼표레일웨이㈜    | 오송공장 생산팀 | 문광현     | 5급         | 2019-02-18 |
|         | 삼표피앤씨㈜     | 공사수행팀    | 임성훈     | 과장         | 2019-01-02 |
| 콘크리트기획팀 |            | 정두진      | 대리      | 2019-01-02 |            |

| 회사명         | 팀명           | 이름      | 직급  | 입사 일자      |
|-------------|--------------|---------|-----|------------|
| 삼표피앤씨㈜      | 생산운영팀        | 황성욱     | 과장  | 2019-01-02 |
|             | 제천공장 생산팀     | 정연태     | 기능  | 2019-01-02 |
|             | 관리담당         | 이선웅     | 상무  | 2019-01-21 |
|             | 포항공장         | 황의민     | 부장  | 2019-01-21 |
|             | 상주공장 생산팀     | 박재홍     | 부장  | 2019-01-24 |
|             | 상주공장 관리팀     | 유현우리    | 6급  | 2019-01-24 |
|             | 포항공장 생산팀     | 송경민     | 과장  | 2019-01-24 |
|             | 청주공장 DW운영팀   | 김민준     | 5급  | 2019-01-28 |
|             | 상주공장 생산팀     | 윤명환     | 과장  | 2019-02-01 |
|             | PC시공담당       | 임총락     | 상무  | 2019-02-11 |
|             | 청주공장 DW운영팀   | 송시현     | 기능  | 2019-02-13 |
|             | 청주공장 DW운영팀   | 김봉현     | 기능  | 2019-02-15 |
|             | 청주공장 DW운영팀   | 홍성환     | 기능  | 2019-02-15 |
|             | 청주공장 DW운영팀   | 이승현     | 기능  | 2019-02-15 |
|             | 청주공장 DW운영팀   | 이규혁     | 기능  | 2019-02-18 |
| 삼표피씨 엔지니어링㈜ | 대표이사         | 이석용     | 전무  | 2019-02-18 |
|             | BIM팀         | 윤인현     | 대리  | 2019-03-01 |
| ㈜에스피네이처     | 경산사업소        | 정유진     | 6급  | 2019-01-01 |
|             | 제주사업팀        | 박철주     | 기능  | 2019-01-01 |
|             | 제주사업팀        | 성진태     | 기능  | 2019-01-01 |
|             | 제주사업팀        | 강대범     | 기능  | 2019-01-01 |
|             | 제주사업팀        | 김형준     | 기능  | 2019-01-01 |
|             | 제주사업팀        | 송광우     | 기능  | 2019-01-01 |
|             | 제주사업팀        | 강동흡     | 기능  | 2019-01-01 |
|             | 천안Slag공장 생산팀 | 이세진     | 사원  | 2019-01-02 |
|             | 단양생산팀/현장     | 신우식     | 기능  | 2019-02-11 |
|             | ㈜맨트랙         | 연마유지보수팀 | 오세욱 | 기능         |
| 연마유지보수팀     |              | 최동극     | 기능  | 2019-02-13 |
| ㈜청암         | 연마유지보수팀      | 김찬우     | 기능  | 2019-03-04 |
|             | 남양주공장 관리과    | 송경식     | 사원  | 2019-02-12 |

\* 입사 날짜 : 2018년 12월 15일 ~ 2019년 3월 22일

## 독자 퀴즈

Q1. 최근 우리 그룹은 직원 ○○ 체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은 우수한 성과 창출의 바탕이 되는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개개인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사고방식,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은 무엇일까요? (p.24 참고)



○ ○

Q2. 우리 그룹은 사업 성격이 비슷한 계열사를 묶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삼표기초 소재(㈜와 (주)네비엔, (주)경한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업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p.14 참고)



SP NATURE ○ 人 표 L ○ ㅌ

✉ 두 문제의 정답을 5월 24일까지 이메일[kmm@sampyo.co.kr 홍보팀 김미미 사원]로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만 원권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보내 주실 때 이번 호 기사 중 재미있었던 칼럼과 그 이유, 혹은 사보에서 다루길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 주시면 퀴즈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

- Q1. 연탄
- Q2. 돼지

## 당첨을 축하합니다

- ㈜삼표산업 서부공장 품질과 황정현 사원
- ㈜삼표산업 품질평가팀 황채린 사원
- 삼표피앤씨(주) 공사수행팀 임용주 과장
- 삼표피앤씨(주) 포항공장 관리팀 김연옥 사원
- ㈜에스피네이처 중기기술팀 임성혁 사원

## 사업부별 소식을 보내 주세요!

그룹 내 뉴스를 보다 발 빠르게 전하기 위해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별 단신 뉴스를 모집합니다. 삼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은 생생한 소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메일[sh8853@sampyo.co.kr 홍보팀 이선화 대리, kmm@sampyo.co.kr 홍보팀 김미미 사원]로 공유해 주세요. 보내 주신 뉴스가 사보에 게재될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